

데스크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안철수)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문재인) 항간에 그런 말도 있죠”“(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문) 그게 제 생각입니다.”“(안) 그렇습니까?”“(문)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안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반대하려고 정치하십니까?”“(안)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문)하하하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와 닉슨의 공통점

지난 2017년 4월 2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부메랑이 된 프레임

에 오간 문답이다.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굳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안 후보에게는 ‘대선 패배’의 단초로 작용하게 된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이자 정치 담론의 프레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지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안 후보처럼 프레임을 ‘잘못 사용’ 사례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닉슨은 대통령 집무실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거짓말을 했다가 틀음이 났다. 탄핵 요구에 직면한 닉슨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TV연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 am not a crook)
레이코프는 닉슨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그 순간 모든 미국인이 그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철수 역시 닉슨처럼 경쟁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제는 진부해진 ‘프레임’ 이론을 또다시 꺼내는 이유는 총선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 정치에서 촛불혁명 이후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절치부심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스스로에게 부메랑

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 담론에서 ‘프레임’은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기준 또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특정 목표를 위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들여 수십, 수백만 명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문제는, 그 보지않는 프레임은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단어’라는 점이다.

흔들리는 진보·보수진영

우리 정치에서 ‘촛불’이라는 단어는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곧바로 최고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촉매다. 촛불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탄핵·혁명·공정·적폐청산 등을 연상시키며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아이콘으로 작용한다. 보수 진영이 촛불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태극기를 내세워 애국심과 안정·경제·국가안보 등의 단어를 활용한 보수 프레임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레이코프는 ‘상대방이 짜 놓은 프레임에 대항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다. ‘프레임은 특정 단어로 활성화된다’는 주장의 연장선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들여다보면 ‘촛불’이 상징하는 공정·혁신·기회균등·적폐청산 등의 강력하고 매력적인 단어들이 서서히 ‘진보 진영’에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공격했던 과거 보수 진영의 온갖 적폐가 지금의 진보 진영에서도 저질러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이들 단어로부터 ‘마법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극우 보수 미디어가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일부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수 진영이 사본오염되면서 보수의 프레임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보로선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은 그로부터 2년 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든 보수든 지금처럼 상대의 실수나 잘못에만 의지해선 미래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크리스마스 선물 이몽(異夢)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Hollbelle)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했고 이후 미국, 유럽 등 전 대륙으로 결핵 환자 치료 및 퇴치 운동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서우드 홀 선교사에 의해 납대문을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실이 발행되었다.
요즘에는 아이들과 연인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크리스마스’라면 선물을 떠올린다. 크리스마스 최초의 선물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 그 시대의 현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한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관습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에 ‘크리스마스에 주고 싶은 선물’을 검색하니 몇 개 안되는데 받고 싶은 선물은 엄청 많다.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 심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모든 선물 중 최고는 언제, 어디서나 ‘뭐니 뭐니 해도머니’라고 한다.
한 해외전문이 15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과 실제로 받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몽(異夢)’이다. 대표적인 선물 이몽은 오 헨리의 단편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만난다. 가난한 젊은 부부 짐과 델라, 남편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거쳐 내려온 유물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고급 머리핀 세트를 산다. 아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갈색 머리칼을 팔아서 남편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산다. 서로의 선물을 받고 망연자실하는 두 사람, 서로가 갖고 싶던 물건들, 큰 대가를 치르고 구한 선물인데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다.
이 상황을 다양하게 전개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원망하며 화를 낸다. 둘째, 선물을 반쯤만 준다. 비명을 지르며 돌려지지만 델라는 자른 머리칼을 다시 붙일 수 없다. 셋째, 필요해질 때까지 그 선물을 보관한다. 넷째, 선물을 통해서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해 한다.
짐과 델라는 마지막 경우이다. 젖은 눈으로 뜨겁게 포옹한다.

오 헨리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희생해 버린 어리석은 두 젊은이의 따뜻한 이야기를 서툴게 늘어놓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선물을 주는 모든 이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들이야말로 곧 동방 박사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진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소설을 통하여 그가 전하고 싶은 의미는 다음 세 가지라고 본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작가는 이 선물을 대하는 독자의 선택을 묻는다. 원망이나 반쯤, 또는 자기 보관인가? 아니면 그분과의 뜨거운 포옹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수많은 인간 사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몽을 지적한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기념할지 개인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도 뜻 있다고 생각한다.

社說

광양제철소 잦은 폭발·화재 무엇 때문인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수개월 전 일어난 화재·정전 사고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폭발 사고로 많은 광양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불은 24일 오후 1시 15분께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발전 설비 내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이 불로 작업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다섯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폭발 사고로 100m가량 떨어진 이순신대교가 흔들리고 쇠조각을 비롯한 파편이 공장 주변 도로에 날아들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안전 문제로 한때 교통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는 다시 통행이 재개됐다. 이번 사고는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장비 16대와 소방대원 4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친 소방 당국은, 최근 개발한 발전 장비를 시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2년 새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지난해 산재 사고로 다섯 명이 숨져 노동계가 선정한 ‘최악의 살인 기업’ 공동 3위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6월엔 포스코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엔 변전소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해 제철소 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잔류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배관 안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광양시내를 뒤덮으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니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과 포스코는 폭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존 여론 확인된 장륙습지 환경 생태 명소로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광주 시민 여론조사에서 열명 중 여덟 명이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존이나 개발이냐’를 놓고 1년 2개월 간 계속된 논란과 갈등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륙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85.8% 반대 14.2%. 조사 대상은 장륙습지 인근 주민 500명, 광산구 주민 200명, 광산구의 주민 300명 등이었다.
황룡강 장륙습지는 광주 광산구 호남대 앞부터 영산강 합류부인 광주공항까지 약 8km 구간이다. 면적은 강과 주변 습지를 포함해 3.06㎢에 이른다. 지난 2017년 광주시의 의뢰로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정밀 조사한 결과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삿 등 멸종 위기 네 종을 포함해 모두 820종의 생물이 서식하

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개발 제한을 우려하며 체육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이 빚어졌고 보호지역 지정은 유보됐다. 이후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격차가 6.5%포인트 이상 나면 그 결과를 수용하지는 중재안이 제시됐고 마침내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환경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광주시와 광산구는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등산·광주천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축이자 국내 최대의 도심 습지인 장륙습지를 환경 생태의 명소이자 지역민을 위한 ‘그린 인프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방법이자, 가문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관문이었다. 이 때문에 시험장은 수년 동안 수확해 온 전국 각지의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조선 숙종 이후 서얼(庶孽) 출신까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 응시자 수 급증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678년 숙종 때는 명륜당에서 실시한 시험에 수많은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여덟 명만 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다. 연암 박지원 선생도 어느 해 과거를 보러갔다가 뱀혀 죽을 뻔했다는 글이 있다. 이처럼 과거 시험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과거 시험을 보는 마당’을 ‘난장(亂場)’이라 했다.
‘난장판’은 여러 사람이 뒤섞여 어지러이 떠들며 대가나 뒤죽박죽이 된 판을 뜻한다. 이런 난장판이 최근 대한민국 국회 안팎에서 발생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처법)·선거법남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지지자들, 일부 보수단체들이 그 장면이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경내에서 육설은 물론 다른 당 국회의원과 당직자까지 폭행하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청 진입까지 시도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한국당 지도부가 대회 참석자들을 선포하기까지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충돌 중이니, 국회 안팎에서 난장판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제20대 국회는 그동안 서로 싸움질만 하는 ‘동물 국회’, 게다가 민생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하는 ‘식물 국회’로 불리는 등 갖은 오명을 다 썼다. 20대 국회가 종료되기까지 이제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난장판으로 얼룩진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난장판

기고

‘소인기’(少忍飢)와 현대판 장발장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에서 화려한 인천의 마트로, 발견 장면은 사람의 눈이 아닌 CCTV란 현대 문명의 기계. 흠뻑 먹거리도 빵에서 우유와 사과로 달라졌으며 현대판에서는 어린 공모자가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으로 19년의 형을 살았다. 한국의 현대판은 마트 주인의 응서.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은 형무소 대신, 주린 부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줬다. 열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호주머니 속의 돈을 꺼내 정을 베푸는 경찰 때문에 코끝이 시큰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는 그를 경외로 한 사람이 봉투를 전해주고 그냥 되돌아가는 장면이었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그가 건넨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한다. 감동 위에 감동이 겹쳤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집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더 있단다. 세 가족이 아침밥, 점심도 먹지 못했으니 누구라도 이성적 판단은 뒤로 밀렸을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야 체념이라도 하겠지만 쌓여 있는 먹거리를 앞에서야… ‘레미제라블’의 재판(再版)이 200년이 흐른 한국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장소가 파리의 빈민가

편의 친구들에게 수제비라도 끓여 대접하려고 식칼로 꺾꽂이를 쪼개다가 잘못하여 찢기게 된다. 흠뻑 먹거리도 빵에서 우유와 사과로 달라졌으며 현대판에서는 어린 공모자가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으로 19년의 형을 살았다. 한국의 현대판은 마트 주인의 응서.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은 형무소 대신, 주린 부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줬다. 열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호주머니 속의 돈을 꺼내 정을 베푸는 경찰 때문에 코끝이 시큰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는 그를 경외로 한 사람이 봉투를 전해주고 그냥 되돌아가는 장면이었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그가 건넨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한다. 감동 위에 감동이 겹쳤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집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더 있단다. 세 가족이 아침밥, 점심도 먹지 못했으니 누구라도 이성적 판단은 뒤로 밀렸을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야 체념이라도 하겠지만 쌓여 있는 먹거리를 앞에서야… ‘레미제라블’의 재판(再版)이 200년이 흐른 한국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장소가 파리의 빈민가

어나자 광릉의 세조 능의 위패를 지켜 선조를 감동시켰다. 그 뒤 별시문과, 문과중시 장원하고 세자 광해군을 가르쳤다. 영창대군의 탄생 이후 영의정인 소북의 유영경과 대립하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반대파인 유영경 등을 숙청하고 대북의 영수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10년을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약삭같이 재물을 모았다. 가난 시절의 한풀이가 잘못된 것이다. 끝내는 역적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을 직전에 친자들에게 ‘소인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다.
영원한 권력, 영원한 영광은 없다. 사노라면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늘은 끝내 공평하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도 흠치는 것에 손뼉 칠 수는 없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으로 저지른 죄에 함부로 붉은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된다. 용서받을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며 살아간다.
‘현대판 장발장’ 경찰관과 익명의 기부자,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의 넘치는 성탄, 훈기가 가득한 세모였으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